제 99 호
2021년 10월 20일

보라매

발행처 : 대한민국공군전우회, (사)공군발전협회 발행인 : 김성일 편집인 : 염규열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36길 92
Homepage: www.airforce.ne.kr / www.arokaf.co.kr E-mail: kafva@airforce.ne.kr 전화: 02-825-8461 FAX: 02-825-8460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국민의 군대, 대한강군'을 주제로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국민의 군대, 대한강군'을 주제로 10월 1일 해병대 1사단 인근 영일만에서 거행됐다.한반도 평화·번영을 강한 힘으로 뒷받침하는 국군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합동상륙작전 피스메이커(Peacemaker)'는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였다. 작전명 피스메이커에는 육·해·공군과 해병대 장병 2300여 명, 173대의 합동전력이 투입됐다.

해병대1사단장의 임무 출동 보고로 시작된 합동상륙작전은 육군특수전사령부 공중 침투와 공군 핵심 표적 타격으로 이어졌다. 공군 항공통제기 E-737 피스아이와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KC-330 시그너스, F-35A·F-15K·KF-16·FA-50 등 42대의 항공기로 구성된 공격 편대군이 강력한 위용을 선보였다

그 뒤를 이어 육군 공격헬기 AH-64 아파치 가디언과 한국형 기동헬기 KUH-1 수리온, 상륙기동헬기 MUH-1 마린온 등 헬기 40여 대가 공중을 지배하는 가운데 64대의 해병대 상륙돌격장갑차(KAAV)가 해상을 질주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마지막으로 KAAV에서 하차한 해병대 장병들이 목표를 확보한 뒤 태극기를 펼치면서 합동상륙작전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올해 국군의 날 행사에는 우리 군이 새롭게 도입한 다양한 무기체계가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해군 대형수송함 '마라도함'이 국군의 날 기념식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상륙기동헬기 MUH-1 마린온은 문재인 대통령이 탑승하는 '마린원' 역할을 수행했다. 최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쏘아 올렸던 3000톤급 국산 잠수함 '도산안창호함'은 대형 태극기를 부착하고 등장해 '국기에 대한 경례'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행사에서는 연평도 포격전 유공자 훈·포장 수여와 육군51보병사단 등 11개 부대에 대한 대통령 부대표창, 미라클 작전 임무를 완수한 공군5공중기동비행단에 대한 특별 부대표창 수여 등이 진행됐다. 이와 함께 국방개혁 2.0의 하나로 창설되는 4개 부대에 부대기가 수여됐다. 신규 창설 부대는 산악지역으로 침투하는 적 특수전 부대 차단·격멸을 맡는 '육군1산악여단', 적 잠수함 위협에 대응하는 항공전력인 '해군 해상초계기대대', 한반도 전역 탄도탄 탐지·추적·식별 임무를 수행할 '공군 탄도탄감시대대', 미래 입체 고속상륙작전을 선보일 '해병대 항공단' 등이다.//

국방 R&D 중추 '국방과학기술위원회' 출범

우리나라 국방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범정부 차원의 '국방과학기술위원회'가 10월 7일 출범했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과학기술을 도약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1회 국방과학기술위원회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방과학기술위원회는 미국의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과 같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획기적인 미래 첨단기술을 도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부처 간 우선 관심사가 다른 상황에서 이를 총괄·조정해 정책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역할도 맡는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의 '빠른 추격자(Fast-Follower)' 전략에서 '미래 선도자(First-Mover)'로 전환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세계 방산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조직인 국방과학기술위원회는 국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국방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방사청) 등 관계 부처 차관급과 우리나라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견인하는 주요 정부출연연구소 기관장, 민간전문가로 구성됐다. 정부는 국방과학기술위원회를 통해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국방 연구개발(R&D) 사업을 보다 큰 규모의 사업군으로 묶어 투자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취임인사차 김성일 회장 예방

지난 7월2일 취임한 박인호 공군참모총장(대장, 공사35기)이 8월11일 취임 인사차 본회 김성일 회장을 예방하여 환담을 나누었다.

이날 본회 김 회장은 "공군전우회와 공군발전협회 전 회원을 대표하여 참모총장에 취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두 단체는 최근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는 우리공군이 이를 잘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하면서 예비역 대표단체인 공군전우회와 공군발전협회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 대담을 나누고 본인이 총장으로 재임시 경험담 등을 박총장에게 전해주었다.

신임 박 총장은 "우리공군이 조속한 기간내 국민으로 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영공방위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지켜봐 주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주한 일본 국방무관 및 공군무관 내방

주한일본 국방무관 겸 공군무관인 마츠모토 대령과 효도 고타로 공군대령이 7.19일 인사차 김성일 전우회장을 예방하여 환담을 나누었다.

마츠모토 대령은 한국에서 3년간 근무를 마치고 8월 2일 일본으로 귀국하게 되며 후임으로 효도 고타로 대령이 공군무관으로 임무를 맡게된다.

김성일 회장은 이임하게 되는 마츠모토 대령에게 "그동안 한일간 교류협력을 위한 공로를 치하하며" 후임 효도 고타로 대령에게도 "한일간, 특히 한국공군전우회와 일본 츠바사회간의 교류·협력을 위한 가교역할을 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지난 6월중 일본 츠바사회 회장으로 취임한 사이토 하루카즈 장군이 취임인사 서신을 보내왔으며, 본회 김 회장도 일본 츠바사회장에게 취임축하 인사와 함께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국제장애인 올림픽대회 집행위원으로 참석하게 되는데 기간중에 츠바사회 회장과 만남의 시간을 갖자고 서신을 보냈다.//

공군ROTC장교회, 후보생 장학금 수여

공군 ROTC 장교회(회장 김형구)는 7월 30일 49·50기 공군 ROTC장교후보생 하계입영훈련 마지막 날, 공군ROTC장교후보생 6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하계입영훈련 위문 방문이 COVID-19의 확산으로 인하여 취소되면서 교육사 장교교육대대대장이 대리 수여하였다. 공군ROTC장교회 장학후보생은 김경중(교통대 49기), 김세중(항공대 50기), 조건국(한서대 50기)이며, (재)ROTC 중앙회장학재단 장학후보생은 손용락(한서대 49기), 윤효준(항공대 49기), 주재우(교통대 49기)이다. //

수원지회

수원지회(지회장 정도진)는 경기도자원봉사센터의 '2021 도민이 전하는 1차 공모사업'에 지원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아 7월 19일부터 8월 2일 까지 총 3회에 걸쳐 삼계탕을 조리 및 포장하여 관내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 하시는 수원시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들 약 1,300명에게 삼계탕을 가가호호 배달했다.

이번 행사에는 총 50여명의 전우회원 및 시민봉사단이 참가하여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진행했다.//

김성일 회장, 일본 츠바사회 회장과 대담

국제장애인 올림픽위원회(IPC : International Paralympic Committee)집행위원인 본회 김성일 회장은 2020 도쿄 패럴림픽대회 기간중 일본 도쿄에 체류(8.21~9.6)하면서 9월 4일 일본 항공자위대 전역자 단체인 츠바사회(翼會) 사이토 하루카즈(齊藤治和) 회장과 만나 환담을 나누었다.

양개국 단체 회장은 상견례 겸 양국단체 활동상을 서로 소개하고 두 단체간의 교류활성화 증대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한국공군전우회와 일본츠바사회 간의 교류활동은 2004년도부터 회장단 약 10여명이 매년 격년제로 교차 방문을 실시하여 상호 친선도모 및 교류활동을 해왔으나 코로나-19사태로 2020년부터 실시하지 못하였으며,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상호 교환방문을 지속해나가자고 합의했다.//

골프동호회 총무단 회의 및 친선운동

골프동호회(회장 이강욱)는 9월 30일 성남기지 체력단련장에서 각 특기별, 신분별로 구성된 골프동호회 단체 총무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무단 회의 및 운동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 19 방역지침준수 적용에 따라 전체 모임을 갖지 않고 전우회 조직국장과 각 단체 대표가 1대1로 만나 회의자료를 배부하고 금년도 친선골프대회(11월 4일/성남수원체력단련장) 기본계획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한 후 함께 친선운동을 했다.//

서용길 회원 민족 공훈 대상 수상

본회 서용길 회원(예 중령, 학사 55기, 공군사랑회장)이 8월 15일 제76회 광복절 기념일을 맞아 투철한 봉사정신과 사명감으로 대한민국 전통문화 계승발전 및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민국헌정회(회장 김일윤), 대한민국 국가원로회(회장 이상훈) 및 대한민국 범국민추진위원회(총재 김광을) 3개 단체(공동 주관)로 부터 민족공훈대상을 수상했다.//

안호원 회원 시집 "귀의(歸意)" 출간

본회 안호원 회원이 9월말 본인의 12번째 시집인 '귀의'를 출간했다.

시집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시집은 많은 시인이 출간하는 시집과는 사뭇 다른 느낌을 주는 시집이다.

이 세상을 살다간 수많은 작곡가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 작곡하는 것이 그 작곡가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레퀴엠(requiem)이라고 한다.

자신이 살아온 신산(辛酸)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솔직하면서도 고찰이 녹아있는 음악이기 때문에 그러는지도 모르겠다. 안 시인의 '귀의'가 그렇다.

시 한편 한편을 읽다보면 빙그레 웃음이 나오다가도 어느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때론 숙연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바람에 꽃잎이 지는 것을 보며 서러움이 기보다는 찬란한 아름다움으로 다가섬을 시인은 가슴으로 노래하고 있다. 울음이 긴 꼬맹이의 투정처럼 벚꽃 흐드러진 봄날의 풍장에 꽃 세상은 어찌 보면 슬프지만 아프지만은 않은 것처럼 안 시인은 시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소중함을 노래하고 있다.

안 회원은 한마디로 뒷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운 시인이다.//

공군, 전반기 지휘관 회의

공군은 7월13일 공군본부에서 박인호 참모총장 주관으로 전반기 지휘관회의를 개최했다.

공군은 코로나19 확산상황을 고려해 현장 참석인원을 공군본부 주요 직위자로 최소화하고, 예하 부대 지휘관 등은 화상으로 참여토록 했다.

먼저 회의에 앞서 박 총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바르고 강한 공군'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병영혁신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지휘관들에게 당부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장병 인권 보호 및 조직문화'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장병 생활여건' '군사법 제도' 등의 개

선내용을 점검했다.

또 참모총장 직속 병영혁신 전담조직 편성, 민간으로 구성된 병영혁신자문위원회 운영, 군사경찰 및 군 검찰의 조직 개편을 포함한 병영혁신 발전대책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공군 우주력발전위원회 출범식

공군의 미래 우주 역량 발전을 위한 민·군 공동 의견 수렴 기구인 '공군우주력발전위원회'가 9월23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우주정책전략, 우주전력발전, 우주협력 등 3개 분과위원회로 편성됐다. 박인호 공군참모총장과 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천문연구원·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간 우주 분야 전문가 22명과 공군 우주 관련 부서 현역 19명 등 43명이 각 분과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전체·분과회의를 열어 국가·국방 우주력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또 우주 정책·전략·관련법 및 우주 영역 인식·위성체·발사체

등 공군이 추진 중인 과제의 전문 견해를 수렴해 향후 추진 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출범식은 위원회 소개,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 분과별 공군 우주 분야 현안·현황 보고 등으로 진행됐다.//

韓 공군-美 우주군, 우주안보 협력 파트너 공식화

한국 공군과 미 우주군이 우주 관련 군사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공군은 8월29일 "존 레이먼드 미국 우주군참모총장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한 박인호 참모총장이 8월 27일(현지시간) 콜로라도 피터슨 기지에서 '한 공군-미 우주군 우주정책협의체에 관한 약정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2017년 미 공군과 최초 체결한 이 약정서를 미 우주군 창설에 따라 개정했으며, 우리 공군과 미 우주군이 우주안보 협력 파트너가 됐음을 공식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서명권자를 참모총장으로 격상해 우주 정책·정보 공유, 인적교류, 기술협력 등 우주 관련 군사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공군교육사, 부사관후보생 240기 임관식

공군교육사령부는 6월30일 240기 부사관후보생 임관식을 거행하고, 434명(여군 112명)의 신임 부사관을 배출했다. 신임 부사관들은 지난 6월 17일 입영해 11주 동안 강도 높은 기본군사훈련을 받았다. 또 자치근무 중심의 병영생활로 자율성과 책임의식을 익히고, 간부로서 갖춰야 할 군사지식을 함양했다. 아울러 '임관종합평가제' 기준에 따라 강인한 체력, 전투지휘능력, 교육훈련 지도능력을 검증받았다. 임관식은 코로나19 상황으로 가족·친지 참석 없이 자체 행사로 열렸다. 부대는 임관식에 참석하지 못한 가족들을 위해 국방홍보원 소

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널로 행사를 생중계했다. 행사는 임관사령장 수여, 계급장 수여, 임관 선서, 교육사령관 훈시 순으로 진행됐다.//

국제 항공우주력 학술회의

공군은 7월15일 "연세대학교가 주관하고 공군이 후원하는 제23회 항공우주력 국제학술회의가 큰 관심 속에 공군본부 본청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한 이날 회의는 '대전환 시기의 국방우주력'을 주제로 전개됐다.

또 급변하는 국제 안보환경을 진단하고 미래 변화에 따른 국방우주력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뒀다.

회의는 과학기술정보협의회(ASTI) 공평원 안보전략센터장의 사회로 연세대 서승환 총장의 개회사, 서욱 국방부 장관의 영상 축사, 박인호 공군참모총장의 환영사 등 식전행사와 1, 2세션으로 구분돼 진행됐다.

'코로나 시대와 한국의 국방우주력'을 세부 주제로 한 1세션에서는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 배리 포센(Barry Posen) 교수와 연세대 정헌주 교수가 국방과 우주안보의 딜레마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또 2세션에서는 미국 랜드연구소 브루스 베넷(Bruce Bennett) 군사전문가와 세종연구소 김정섭 박사가 우리의 안보위협·환경을 평가했다. 아울러 한국국방연구원 설인효 박사와 한남대 양욱 겸임교수는 각각 KF-21의 미래전략과 모자이크전략을 활용한 항공우주전 수행 방안을 발표·토론했다.//

제14회 조종사의 날 기념 행사

매년 7월 3일은 조종사의 날이다.

1950년 6·25전쟁 당시 우리 공군 최초의 전투기 F-51(머스탱)의 첫 출격일을 기억하고자 2008년 제정돼 이어지고 있다. 이에 각 공군 부대는 제14회 조종사의 날 기념행사로 자긍심을 함양하고, 영공수호 의지를 다졌다.

19전투비행단(19전비)은 7월 9일 기지에서 조종사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순직 장병 참배로 시작됐다.

3훈련비행단(3훈비)은 7월 8일 기지 위령비 앞에서 행사를 열었다. 행사에는 부대 지휘관·참모, 교관·교수·학생조종사 등 신분별 대표 15명이 참석했다.

같은 날 18전투비행단(18전비)도 조종사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했다. 이들은 비행대대별로 시차를 두고 기지 전공탑을 참배하며 영공수호를 위해 산화한 선배 전우들의 넋을 추모했다.//

'2021 공군 창의·혁신 아이디어 공모 해커톤대회' 시상식

공군은 9월 27일 공군본부에서 박인호 참모총장 주관으로 '2021 공군 창의·혁신 아이디어 공모 해커톤' 대회 시상식을 거행했다. 올해 3회를 맞은 대회는 '스마트 국방혁신 구현을 위한 공군 임무 분야 디지털 전환 방안'을 주제로 지난 4월부터 펼쳐졌다.

공모 접수로 시작해 7월 예선심사와 8월 전문가 멘토링을 거쳐 9월 본선 심사가 이어졌다. 공군 장병, 전국 대학·대학원생, 스타트업 및 연구기관 종사자 등 179개 팀이 항공우주작전, 기지방호작전, 작전지원, 교육훈련, 병영복지 등 5개 분야에서 참가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합동군사대학교 김용환 공군중령(진)의 'ROKAF AI'팀이 대상을, 15특수임무비행단 반성수 준위 등 4명의 'End Of the Day'팀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또 우수상 4팀, 장려상 4팀 등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대상을 차지한 'ROKAF AI' 팀은 공중전투기동훈련체계(ACMI) 데이터를 활용한 전투기 공대공 교전 승리요인 분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아울러 민간 참가팀인 전남대학교 강준호 씨 외 3명의 'FAKOR'팀과 이화여자대학교 김태희 씨 외 3명의 '잠자리'팀도 각각 '아이트랙킹 기술을 활용한 드론 조종방안'과 '병사 복지 향상을 위한 공군 메타버스 구축 방안'을 제시하며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